

“KWMC 향후 북미주 선교 좌우할 것”

1천3백여 남가주 교회들이 동참해야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이하 KWMC, 사무총장 고석희) 미 서부지역 지도자들이 올 여름 시카고에서 열릴 제7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천3백여 남가주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원로목사를 비롯해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김정환 목사, 미주복음방송 박신욱 사장 등 교계 지도자들은 25일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무한한 선교 잠재력과 선교 역량을 모을 이번 대회에 남가주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미주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988년 첫 대회 이래 4년에 한 차례씩 개최해 온 이 대회를 통해 4천 5백여 북미주 교회에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됐다”면서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향후 30년의 북미주 선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열리는 이 대회를 통해



세계선교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한인세계선교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남가주 지역 교계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북미주와 한국 간의 긴밀한 선교 협력을 이루고,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의 협력 선교 구축을 확대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역대 대회 참석률을

보면 미주 한인교회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 남가주 교회들의 참석률이 가장 저조하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미주에서 한인선교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한기홍 목사는 “한인교회들 중 80퍼센트가 선교에 주력하기보다는 교회 건축 등 현상 유지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11면에 계속



전재학 목사(좌)가 박효우 목사(우)에게 오바마대통령 봉사상을 전달하고 있다.

박효우 목사 오바마대통령 봉사상 수상

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이자 풍성한교회 담임인 박효우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수상했다. 박 목사는 물론 세계 선교와 봉사에 크게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최근 이 상을 전달받았다. 백악관을 대신한 박 목사에 이 상을 전달한 전재학 목사(교협홍보분과위원장·목사회인문분과위원장)는 “박 목사는 교회연합활동을 통해 한인교회를 섬기고 사모와 은퇴목사 등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치하했다. 박 목사는 “제 목회는 내적으로 회복목회이며 외적으로 섬김목회”라고 소개하며 “더 낮아져서 미국과 한인사회, 교회를 섬기라는 뜻으로 이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상은 원팔연 목사(전주 바울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前 총회장)도 함께 수상했다. 한편, 박 목사는 최근 RCA(미국개혁신교단) 한인교회협의회 전국총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박 목사는 29대회 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이번에도 3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는 “29대 회장을 하며 한인들을 하나되게 하는 일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범아시아 연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WCC · 동성에 반대 결의

교단 내 복음주의 신학 정체성 확인

해외한인장로회(이하 KPCA)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타코마 생생교회(담임 임규영 목사)에서 337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총회를 열고, WCC와 동성에 반대를 결의했다. 이는 “글로벌 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타교단과 협력해야 하지만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총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KPCA는 WCC의 세속화와 종교

다원주의 입장이 본 교단의 신학적 노선과 맞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2013년 한국에서 열리는 WCC 총회에 교단 전 목회자들의 참석을 금했다. WCC 참석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은 20표에 불과했으며, 예전부터 논의됐던 WCC 지원 예산 5만 달러 역시 기각됐다.

단, WCC 총회 준비위원회가 타교단과 더불어 본 교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막지 않기로 결정

했다.

신임 총회장 강대은 목사는 “본 교단의 뿌리인 예장통합과 협력해야 하지만, WCC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KPCA와는 맞지 않다”며 “본 교단 대표 파송을 비롯해, 교단 목회자들의 WCC 불참을 결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KPCA는 동성에,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안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KPCA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일체 반대한다”며 “현재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장로교(PCUSA)에 동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총회 기간 서북노회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PCUSA와 협력 관계를 단절하자’는 현의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협력 중단 결정은 유보하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기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KPCA는 타 교단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신학노선까지 교류할 순 없다”며 “교회의 동성에 옹호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세속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확정

노창수 목사가 6월 3일 남가주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94.5%의 찬성을 얻어 담임목사로 확정됐다. 교회가 속한 미국장로회(PCA) 교단법에 따르면,

목회자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등록된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번 공동의회에는 성인, 청년부, 대학부 및 고등부가 참여했다.

TAX 문제 전문 자신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일리세금상담, 세무감사내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 Hwang, W	IRS \$82,317	합의 \$8,218
Mr. Lemmonier, H	FTB \$118,874	합의 \$1,700
Ms. Wilson, M	IRS \$450,190	합의 \$20,160
Mr. Kim, H (C. Corp)	BOE	Sales Tax Audit Dismissed
Mr. Rogers, 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 Farley, 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수업시작일: 8월 26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남가주 지역 할인신학교 학위수여식 거행돼

본격적인 졸업 시즌을 맞이해 남가주 지역의 신학교들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과 사역을 축복하고 있다. 교단과 교파, 신학적 정체성은 달라도 모든 학교들, 모든 졸업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과 복음전파에의 열정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갈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미주성결대 제10회 학위수여식> 초대교회가 전한 원초적 복음 전하라



미주성결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을 기념, 감사하며 예배드렸다.

2일 미주성결대학교는 학위수여식에서 3명의 신학박사와, 7명의 목회학석사를 배출했다. 기획처장 황의정 박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최대영 장로의 기도, 학생처장 최재성 목사의 성경 봉독에 이어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김광렬 목사는 "초대교회가 전한 원초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후 학위 수여식은 교무처장 윤석길 박사의 인도로, 총장 류종길 박사의 환화와 파송기도 후에 미주성결교회 부총회장 차광일 목사의 축사, 미주성결대학교 명예총장 이경근 박사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 학교의 기조를 다지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초대 이사장 고남철 목사에 공로패와 함께 기념 반지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미주장신대 제32회 학위수여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역자 되길



미주장신대가 학위수여식을 통해 졸업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가 지난 2일 홀러문장로교회에서 제 3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 2부 학위수여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강대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에서는 학생처장 박종기 박사의 학사보고에 이어 시

상, 총장 이상명 박사의 격려사, 기념품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 수여자는 B.Th. 9명, M.Div. 31명 등 총 42명이다. 수상자로는 총회장에 박정인, 이사장상에 정희중, 총장상에 안성희·오명진, 동문회장상에 박재구·유미숙 졸업생이 각각 선정됐다.

<쉐퍼드대학교 학위수여자 183명 배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인재 양성



쉐퍼드대학은 무려 183명이 졸업하며 성대하게 졸업식을 거행했다.

쉐퍼드대학교도 지난 2일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쉐퍼드대학교는 신학 전공자뿐 아니라 음악, 간호학,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183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했다. 또한 졸업생들은 한인인 물론 흑인, 라티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됐다.

살롬 김 신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예배가 거행됐고 설교는 원로학장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의 메시지를 임현철 박사가 낭독했다. 이날 세계적 위신리더인 토미 위커를 비롯해 영적 치유사역자 박창갑 목사(시애틀열방열매교회) 등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월드미션대 학위수여식과 총장취임식> 2대 총장에 송정명 목사 취임



월드미션대학교는 송정명 2대 총장 취임식을 겸해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제2대 총장에 송정명 목사가 2일 취임했다. 이날 제21회 학위수여식과 겸해 열린 총장 이취임식은 하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23년간 1대 총장직을 역임해 온 임동선 총장은 이임하고, 송 총장이 취임식을 기점으로 본격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송 목사는 성경대 신학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목사는 월드미션대, 아주사피사피대 객원 교수를 거쳐 현재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대표회장,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명예신학교학 박사를 비롯해 총 51명이 학위를 받았다.

<국제개혁대학교 신대원 제33회 졸업식>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40명 배출해



국제개혁대학교는 나성열린문교회에서 학위수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제33회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이 26일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학위 수여식은 사회에 박헌영 목사(국제개혁대학교 직전 총장), 환영사에 황은영 총장, 대표기도에 정종윤 목사(이사회서기), 성경봉독에 이상재 장로(부이사장), 설교에 '복음의 일꾼이 되라'(디모데후서 4:1-8)라는 제목으로 김남수 목사

(KAPC 총회장), 학사보고에 나벤자민 목사(교무처장), 학위수여 및 훈시에 황은영 총장, 졸업생을 위한 기도에서 정종천 목사(이사회 이사), 축사에 이기창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광고에 김남을 박사(신학대학원장), 축도에 이운영 박사(이사회 이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폐회 및 졸업생들의 퇴장으로 마무리됐다.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사건,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심포지엄 등록처 : 허귀암 목사_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총무
TEL 714-308-7308, usa8291@gmail.com
최민기 연구원_이민신학연구소
TEL 714-905-3538, multiculturalpastor@gmail.com

심포지엄 6월 18일(월)_1일 세미나 (등록금 \$10)

제1부 사회 : 허귀암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수석총무)
am 10:00 - 10:30 개회예배

기도 : 원성택 교수(서든 캘리포니아 신학교)
찬양 : 지명현 목사(소리엔)
말씀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축사1: 송정명 목사(미주총회 회장, 미주 평안교회)
축사2: 변영민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3: 임영민 목사(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4: 신중은 목사(오렌지 카운티 한인목사회 회장)
축사 :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제2부 사회 : 오상철 박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 D.Miss.)
am 10:30 - 10:50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보고(서태욱 전도사, 이민신학연구소)

주제강연 :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 목회
am 10:50 - 11:10 박희민 목사 : 개척세대 목회자가 현대 및 차세대 목회자에게
am 11:10 - 11:30 박영배 목사 : 차세대 목회자가 개척세대 및 현대 목회자에게
am 11:30 - 12:30 트랙 1 : 개척세대 / 현대

진행 : 이철 목사(가나안교회)
Presenter 1 : 박희민 목사(나정영락교회 원로)-개척세대
Presenter 2 : 오상철 박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 D.Miss.)-현대
Presenter 3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개척세대
Presenter 4 : 이상명 박사(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Ph.D.)-현대
Presenter 5 : 이철부 목사(세리투스 알레시아 연합교회)-현대
Presenter 6 : 김영배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전임강사, Ed.D.)

pm 12:30 - 1:30 점심식사(나정영락교회 식당)

pm 1:30 - 1:50 특별순서(축사, 이민이 전도사, 독창, 지정 집사(은혜교회), 중창, 여성중창단(포이애버))

pm 1:50 - 3:10 트랙 2 : 현대 / 차세대
Presenter 1 : 박영배 목사(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차세대
Presenter 2 : 최재성 목사(나정영락교회, 부목사 Ph.D.)-현대
Presenter 3 : 마이클리 목사(나정영락교회 EM 디렉터)-차세대
Presenter 4 : 방상우 목사(인민교회 부목사)-현대
Presenter 5 : 유니스우 박사(주님의 영광교회 교육부 Ph.D.)-차세대
Presenter 6 : 강우중 전도사(플레야아트 Ph.D과정/사죄윤리)-차세대

pm 3:10 - 3:30 종합토의와 결원(박희민, 김영대, 오상철, 이철, 박영배 목사)

pm 3:30 폐회 Closing
광고 : 허귀암총무, 오상철 목사(이민신학연구소)

제4회 이민신학심포지엄

2012 4th Symposium of Immigration Theology

개척세대와 함께하는 차세대목회

2011-2012년 내셔널 서베이 전략테이블
2011-2012 National Korean-American Church Survey Strategy Table

북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제시한다!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목소리가 발명되었습니다!

내셔널 서베이 전략테이블 안내(초청자 only)
6월 25 ~ 27일, Ramada Plaza Hotel, CA

▷ 공동 주최 :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
내셔널 서베이위원회(위원장:박희민 박사)

1세파트_위원장: 정인수(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GA)
이재훈(서울 은우교회)
박성민(아주사 피사피대 학교 Special Advisor to President, CA)
민중기(LA 중원성교회, CA)
진유철(나정 순복음교회, CA)
오규훈(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과 교수, Korea)
박수평(국제 코스타 전임총무, Korea)

2세파트_위원장: 민정(크리스찬 웨일교회, Chicago)
박영배(뉴라이프 선교교회, CA)
노승환(토론토 밀알교회, Toronto, CANADA)
정대성(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 교회, CO)

박상원(미주 한인재단 전국총회장)
최남수(만의 성로원 교회 장로)
서준석(나침반 교회 집사, OC 기독교 전도의 연합회 총무)
빈센트김(미주한인재단 LA지부 회장, CA)
김경숙(미주 한인재단 LA지부 사무총장, CA)
이일(나정순복음교회 행정, CA)
호칭기(멜라니안교회, PA)

다민족_위원장: 이운무(Kimnet 사무총장, GA)
조용중(글로벌 호프, Korea)
정윤명(북가주 글로벌 다민족 국제선교대의 회장, CA)
전병철(아세아연합신학교 기독교교수, 교수)

축사 1 : 변영민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축사 2 : 이상명 박사(미주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
축사 3 : 김영대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

일시_2012년 6월18일(월) 10:00 am ~ 3:30 pm) 장소_나정영락교회 EM 예배실 공동주최_ 남가주 한인목사회(김영대 목사) 이민신학연구소(오상철 박사)

<코헨신학대 제24회 졸업식>

본질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코헨신학대 졸업식에는 남미, 아시아, 유럽 등지의 졸업생이 참여했다.

코헨신학대학교 졸업식이 25일 개최됐다. 이 졸업식에서는 총 165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식은 행정총장 로날드 벤티메이 박사의 대표기도, 게리 코헨 박사의 졸업연설, 미셸 강 이사장, 게리 코헨 박사의 특별 장학금 수여식, 피드몬트대 윌리엄 스텐드 총장의 축사, 강조셉 박사(코헨신대 Th. D.), 윤사무엘 박사의 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 총회장 배기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사무엘 박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본질이니 항상 본질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윌리엄 스텐드 박사는 “이제 배운 것을 갖고, 진리를 갖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시간”이라고 도전을 전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제17회 졸업식>

선교현장에서 복음화에 전력 다하라



대한신학대학교가 벨앨장로교회에서 졸업식을 거행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 제17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27일 벨앨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총 13명이 학위를 받았고 장도영 박사(전 육군참모총장)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장 유웅열 박사는 졸업생들에게 “마음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부총회장 황수원 목사는 “이제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 타인에게 겸손,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세계복음화에 전력을 다해 충성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미주대한신학대학교는 LA본교, 토렌스본교, 아메리칸스포츠신학교대학, 사이버대학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

<미주총신대 제34회 졸업식 개최>

본국 예장합동 임원 대거 참석해 격려



미주총신대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미주총신대학교 제34회 졸업식이 26일 LA군뉴스교회에서 열렸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 사회로 드린 이날 졸업식은 이완수 장로(예장합동 부총회장)의 기도, 이성택 목사(예장합동 회록서기)의 성경봉독, 총신USA 교람의 찬양, 이기창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설교, 전철영 목사(교학처장)의 학사보

고, 김근수 총장의 학위 수여, 고영기 목사(예장합동 서기), 황규철 목사(예장합동 총무)의 격려사, 하귀호 목사(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재호 목사(세계선교회 부이사장)의 축사, 송환규 목사(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총 27명이 학위를 받았다.

<미주감신대 제13회 졸업식 거행>

웨슬리 같이 바른말 하는 사람이 되길



미주감신대학교 졸업식이 나성동산교회에서 성대히 진행됐다.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가 지난 4일 제13회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2명에게 신학석사 학위가 수여됐고 특별히 30여 나라에 90여개의 교회를 세운 채의송 목사가 명예선교학 박사를 받았다. 예배에서는 한기형 총장의 사회로 김건도 감리사가 설교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

은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축사한 월드미선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는 “이 어지러운 세대에 웨슬리 같이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학교에서 나오길 축복한다”고 축사했다. 또한 학사보고는 정진식 박사가 맡았고, 축도는 전영규 감리사가 맡았다.

<예슈아대 · 에눅대 · 엘리야대 졸업식>

“신앙의 경주, 오래참음으로 이겨내자”



예슈아대학, 에눅대학, 엘리야대학이 함께 졸업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슈아교회연맹 세계총회(설립 총회장 현베드로 목사) 지역 신학대학인 예슈아대학교, 에눅대학교, 엘리야대학교 제9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26일 파사데나에 위치한 에눅대학교에서 열렸다. 1부 졸업예배는 사회 명예총장 이종은 박사, 기도 윤건상 박사, 성경봉독 심진구 박사, 설교 김훈 박사, 연혁 및 소개 문

원근 박사, 예슈아 학풍 소개 조옥래 박사, 임명장 수여 및 학위 수여 현베드로 박사, 축사 백라헬 박사, Adalber Reyes 박사, 권면 김병도 박사(KAPC 중경총회장), Tom E.Schilt 박사, 광고, 교가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제2부 목사 임직식에서는 김진숙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졸업식>

타인종도 함께 한 의미있는 학위수여식



캘리포니아인터네셔널대학이 세계비전교회에서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노스리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의 졸업식이 지난 2일 세계비전교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타인종 졸업생도 포함돼 있어 더욱더 의미가 컸다. 부총장 홍성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신학 학사 2명, 목회학석사 3명, 목회학박사 6명, 사회복지학석사 1명·박사 2명, 선교학석사 2명

이 학위를 받았다. 총장 심태섭 박사가 신명기 6:4-9의 본문으로 설교했고, 신학부장 서병길 박사가 대표 기도를 맡았으며, 학생처장 전모세 박사가 성경봉독을 맡았다. 격려사를 예장합동 총무 황규철 박사가 맡았고, 축사를 중동문화학 박사재욱 박사가 맡았으며, 이사장 김창식 박사가 축도했다.

Advertisement for '굿모닝 보험' (Good Morning Insurance) featuring Kevin Yoo, a 24-hour service, and contact information: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Advertisement for '암 치료의 희소식' (Rare News of Cancer Treatment) by Dr. Kevin Yoo, offering alternative treatments for cancer. Contact: 213-235-5800, 213-252-9036.

Advertisement for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offering acupuncture services. Contact: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LAORT) featuring a list of programs, contact information for Grace and Greg, and a map showing the college's location in Los Angeles and other cities.

KUMC

한인교회의 갱신을 말하다

전국지도자대회 LA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총회장인 안명훈 목사(아를리연합감리교회)가 대회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인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150여명이 “다시 새롭게 Re-New” 라는 주제 아래 교단과 교회의 갱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매년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마다 교단 산하 파트너교회 연합회와 총회제자훈련부, 한인목회강화협의회 등이 평신도 지도력 개발을 위해 개최하는 전국지도자대회는 12번째 계속되고 있다. 교단 내에서 목회와 평신도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를 개최지로 선정, 방문해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대회는 LA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담임 김세환 목사가 “Re+New” 라는 주제강연을 이끌며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아갔고 강원근 목사(뉴헤이븐한인연합감리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DNA”, 박희로 목사(총회고등교육사업부)가 “한국계 여성의 역할과 다중문화”, 장학순 목사(한인목회강화협의회)가 “건강한 회중-관계의 회복과 치유사역” 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인도했다. 또 Me & Mom, 새신자 정착과 양육, 두 날개로 움직이는 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역동적 예배와 찬양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또 행사가 열리는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저녁 집회가 열렸으며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안명훈 목사(아를리연합감리교회) 등 교단의 중진급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전했다.

한인교회 갱신과 변혁의 DNA를 가지라

김세환 목사, 전국지도자대회에서 주제강의



김세환 목사

LA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올해 전국지도자대회의 주제강연 “Re+New”는 김세환 담임 목사가 맡았다. 전국지도

자대회의 가장 큰 특성은 그 해 가장 주목받는 교회를 개최지로 선정하고 그곳을 직접 평신도 지도자들이 방문해 연구한다는 데에 있다. LA연합감리교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연합감리교단 안에서 손꼽히는 교회이며, 미국 본토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역사성을 자랑하는 만큼 갱신의 필요도 간절히 느끼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 교회는 김세환 목사가 5년 전 부임한 후, 말 그대로 갱신과 변혁을 체험하며 성장해 왔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지도자 150여명은 김 목사로부터 교회의 갱신과 변혁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들으며 비전과 소감을 나누었다.

김 목사는 예수께서 베테스다의 38년된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로 강의를 열었다. 그는 “내가 낮기를 원하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환

자를 꼬집어 말하며 “환자의 낮두리에 예수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명령하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현재 갱신되고 변혁되고 새로워져야 할 한인교회가 이를 명령하시는 주님 앞에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으며 “지금 일어나자”고 도전을 던졌다.

그는 커티스 칼슨과 윌리엄 윌콕이 쓴 책 혁신(Innovation)을 인용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DN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는 Desire, 즉 욕구다. 변화되려는 욕구가 필요하다. 그 환자를 처럼 병고침 받고자는 욕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New Vision이다. 일어나 겠겠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Action Plan이다. 결국 어찌 되었건 일어나서 걸어야 한다. 김 목사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변화와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며 “38년된 환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듯, 우리 한인교회도 새롭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을 계속 이어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위해 예배, 소그룹, 가정, 이웃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전체적인 면에서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목사는 LA한인연합감리교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은 떼어놓은 당상, 그런데…?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강원근 목사 강의

모든 목회자의 고민은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곧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성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나 성장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성장했다고 해서 그의 목회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지도자 대회 강사로 선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강원근 목사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DNA”라는 강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갔다. 그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한국교회에의 적용을 나열한 후, 대안을 제시했다.

요즘 미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는 예전(禮典)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롭다. 보통 전통적 예배가 갖는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대거 생략하거나 간소화하고 찬양과 말씀이 위주가 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또



강원근 목사

복음주의적 성향을 지닌 교회, 혹은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거나 전도와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평신도 리더십이 탄탄한 교회, 불신자 전도에 치중하는 교회가 당연 성장세다. 특이한 점은 어린이 사역이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점이다. 어린이가 늘어나면서 부모모까지 출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바다.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멀티사이트를 가진 교회, 즉 지교회화 확장하는 형식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대세다. 엘리베이션교회, 윌로크리교회, 새들백교회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교회들이 대다수 지교회화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의 10대 대형교회 중에 지교회화 없는 유일한 교회는 조엘 오스틴이 시무하는 레이크우드교회 뿐이다. 이 교회들은 대부분 최근 10년 내에 급성장을

경험했으며 30-40대가 담임하는 경우가 많다. 2천명 이상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라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35세 미만이다. 60세 이상의 성도들은 최근 급성장한 대형교회나 아닌 정통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교회성장 추세에 따라 미국교회는 성장해 왔지만 그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언론들에도 대서특필된 대로 윌로크리교회는 최근 32년간의 사역을 회고하며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고 반성하는 글을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줬다”는 자성이다.

강 목사는 “교회의 관심사가 거룩한 성결이 아닌 초자연적인 치유나 은사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넓이는 1마일인데 깊이는 1인치 밖에

되지 않는 비성숙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가진 성장지향적 목회에 대해 “목회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성장적 목회 지향성이 결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회는 교세 확장과 헌금 확보에만 혈안이 된 이기적 집단처럼 보여지게 됐다고 평했다.

그는 “목회자가 교회의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질적 성장은 결국 양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양적 성장은 교인들의 열성과 신앙의 질을 높여 주는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기독교적인 양적 성장은 인위적이며 교회에 비본질적인 방법론과 요소를 끌어 들여 성숙을 제약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성장일변도의 목회관을 버리고 양자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장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정리했다.

김준형 기자

회의 사례를 들며 예배의 갱신, 소그룹의 활성화, 가정 사역에의 집중, 이웃 섬김의 실천이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설명했다.

더 나아가 “개인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위해서는 언어, 시각, 습관,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결국 갱신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도 개개인이 언어와 시각, 습관과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2012 MTS 컨퍼런스

“평신도를 제자로! 제자를 사역자로!”

교회성장 연구소가 개발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MTS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차원의 영성 리더십 세미나

전세계 천만 크리스천의 **삶을 변화시킨 영성**

당신의 삶도 4차원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Ministry Training School

특징	행사일정 및 내용	강사
<p>1.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평신도를 목회자 같은 사역자로 세우는 훈련 시스템</p> <p>2. 목회자에게 배우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 개발 프로그램</p> <p>3. 평신도 운동, 제자 훈련, 셀, 알파, 멘토링, 코칭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접목한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p> <p>4. 2년 과정후 100퍼센트 사역현장으로 파송하는 교회를 세우는 핵심 사역자 배출 프로그램</p>	<p>일시: 2012년 06월 11일(월)~13일(수)</p> <p>강의시간: 오전 9시~오후5시</p> <p>대상: 목회자및 평신도 지도자</p> <p>장소: 나성서부교회(이정현 목사) 310-749-0577 / 323-939-7323 1218 Fair fax ave., L.A., CA 90019</p> <p>회비: 50불(중식 포함)</p> <p>문의: 714-337-0550 / 323-404-3147 213-448-3493 / 909-452-5897</p> <p>주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송정명 목사 후원: 남가주 교회협의회 회장 변영익 목사 O.C. 교회협의회 회장 영영민 목사 남가주 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 기독일보 이인규 사장</p>	<p>강사</p> <p>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 정도량 목사(MTS 전문강사)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 담임 및 4차원 전문강사) 엄영민 목사(O.C.제일 장로교회 담임) 변영익 목사(벨렐장로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남가주 빛내리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나성 서부교회 담임)</p> <p>MTS 및 4차원 영성을 위한 교역자 대회 대회장: 송정명 목사 대회총무: 박용덕 목사 실무총무: 박세헌 목사, 정우성 목사</p>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며

고린도후서13:4-5



장재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고후13:4 그리스도께서 약함으로 심자가에 못 박하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왔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한 채 자살해 지옥에 가야 하는 불행한 종말을 재촉하고 맙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고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의도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면 삶의 목적과 방법, 인간성,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어떤 것들도 체질개선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체질도 기질도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뿌리로부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으로 스스로 죽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것이며,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아 죽을 지경이 되어도 생명씨대로 덮여 막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했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세우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혼을 빼서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가게 해보겠다고 예수님께 청구를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에게 “안된다”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약함으로 일관하는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내어줄 때는 사탄이 그를 죽이라고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면서 사람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를 사탄에게 내어준다 한들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지었으나 그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야바 뒤뜰에서 두드러 맞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이 새벽녘에 다시 끌려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눈과 마주칠 때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깊은 회개는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로 시험이 들 때까지는 할 수 있었으나 지옥에 쓰러뜨릴 수 없었던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3. 믿음의 지배 아래에서 삶의 균형을

우리가 살아도 그분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란과 압박, 고통과 죽음이 와도 믿음의 뿌리를 의지하고 파고들 수 밖에 없는 것은 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세워 애지중지 가꾸었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중만했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는 다른 지역 선교를 떠나고 베드로와 아볼로가 다녀간 후 고린도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변질되고 인간적으로 변해 누가 더 실세를 가졌는지를 놓고 다툰 정도로 교회가 마귀소굴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자기명분과 실속은 끝까지 쟁기고 말겠다는 목사님들도 드러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고 있다면 자신이 어떠한 희생과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더라도 절대로 그 생명의 뿌리 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예수님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재확인하며 다른 사람의 믿음의 뿌리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확실히 박힌 사람과 어울리면 내 영적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 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친분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자신도 멸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고 하고 있

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계획부터 결실 추수 때까지 우리 믿음을 가꾸십니다. 로마서 9:16-18에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늘나라 후사로 삼기 위한 집념어린 성령의 역사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5대 교리중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내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야 섬김의 자세가 올바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직분을 얻고 환심을 사기 위해 눈치를 보며 섬기는 척,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봉사하는 척, 전도도 중심없이 돈으로 사람을 끌어다 놓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내 입장보다는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기쁨을 먼저 서두르고, 어떤 희생과 수고와,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듯한 가능성이 보이면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섬기는 제물이 되자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진짜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진 자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면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정통하고 성령이 불붙는 교회로 엄청난 속도로 자라나서 오대양 육대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열매로 맺어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사명이며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부터 진리 안에 확실히 거듭나서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말씀에 깊이 주님과 더불어 뿌리내리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성공적인 믿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믿음, 더 잘 섬기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90 LA 마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부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령복음선교회 총재, 선교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령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담임목사 청빙

Albany, NY에 위치한 올바니 한인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본 교회는 PC USA에 소속된 교회이며, 자체성전을 가진 41년된 교회입니다.

가. 자격

1. PC USA에 소속 또는 가입요건이 되시는 분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한국 또는 미국내 신학교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
3. 2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5. 한국어에 능통하고, 영어구사에 불편이 없으신 분

나. 제출서류

1. 이력서 (추천인 명단 3인 이상 포함)
2. 자기소개서 (목회비전 및 신앙간증 포함)
3. 가족소개서 (가족사진첨부)
4. 최종학교 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각1부
5. 설교 테이프 또는 영상설교 (가능하면 설교원고 첨부)

다. 서류마감: 2012년 6월 15일

라. 서류제출처: 이메일접수 및 일반우편접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 이메일: kpcalbany@pcusa.com
2. 일반우편: Nam Soo Lee
23 Lincoln Mall
Schenectady, NY 12309
3. 문의사항: 이남수 장로 (518) 345-4887 또는 namsoo1212@gmail.com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교회에 대한 안내는 교회 웹사이트, www.kpcalbany.org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사오니,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국인목회회, 남가주 총회예지부, 뽀얏장로교회, 엘에이사랑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방송, 한울종합보험, 크리스찬헬메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번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번호사, 재미남가주총회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213-705-0404 / Fax: 213-251-8930

주소: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예장합동 “은혜의 100주년 빛으로 미래로”

총신 동문, GMS 선교사 한 자리 모인 해외선교대회 LA서 성황리에



해외선교대회에 참석한 교단 내 중직들이 교단의 미래와 비전을 두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길자연 목사가 선교대회의 저녁 특별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다.

세계선교 위해 전진할 것 다짐

오로지 은혜로만 모든 것 가능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교단 설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은혜의 100년, 빛으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해외선교대회를 29일부터 31일까지 LA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적극 협력한 가운데, 미주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총신 출신들과 예장합동총회 해외선교부인 GMS 소속 선교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첫날 열린 기념 리셉션에서는 이기창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와 장영춘 목사(KAPC 증경총회장)가 기념사를 전하고,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와 메릴리 피어스(월드비전 설립자 밥 피어스 딸), PCA, RCA, OPC 교단 대표가 감사패를

받았다.

둘째 날 저녁 LA에 위치한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선교대회 예배는 선교사 자녀로 구성된 LIVING CANVAS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가운데, 예장합동 및 한기총 증경총회장인 길자연 목사가 '사람은 은혜로 산다'(시편57:1-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길 목사는 서두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며 "어떤 이는 물질과 권력으로 살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과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

다. 그는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때 간절히 기도했다. 죽느냐 사느냐하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극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이어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했다"며 "이는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길 목사는 "다윗은 절고 물뭍들로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지만, 그의 절박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고 복잡한 문제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날 개인적으로 어려웠

던 것들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날 나는 지옥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명하려고 해도 믿어주지 않고, 정부기관에서도 온갖 비난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숨이 막히고 우울증도 왔지만, 경건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길 목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어려울 때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16년 동안 교회 정치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다. 우리는 잘살기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

야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교를 마무리했다.

설교에 이어 안수학 선교사의 선교보고와 남태섭 목사(총신운영 이사장)의 인도 하에 합심기도가 있었다. 선교대회에 배는 사회 하귀호 목사(공동대회장), 기도 김권중 장로(총회회계), 성경봉독 이성택 목사(총회회회록 서기), 찬양 나성열린문교회 성가대, 설교 길자연 목사, 특별찬양 남가주장로성가단, 메시아여성합창단, 광고 옥성석 목사(대회 총무), 축도 김윤배 목사(전 총신재단 이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교단 관계자 및 성도들은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유럽과 동남아 선교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자 한국교회 성장 이젠 내실 기해야

대형교회 단독선교 아쉬워... 연합하면 큰일한다 예장합동 해외선교대회서 최병국 목사 전해

해외선교 특강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설립 100주년 기념 해외선교대회가 열린 30일 오전, 공동대회장인 하귀호 목사는 "교단 대표들과 GMS 대표들, 미국 교단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GMS가 큰 일을 하려면 돈과 인원, 계획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교단 대표들이 모여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선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 목사는 "유럽교회들이 지금 망해 가고 있어, 한국 선교사들이 유럽 선교



하귀호 목사

를 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이전까지는 유럽선교사들이 대접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주택비가 1000불 이상 들어가는 등 여러가지 비용으로 인해 사모들까지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다시 동남아선교와 유럽선교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 목사는 "한국교회가 100년 사이에 큰 수적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는 성숙은 물론 해외선교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짧은 발언을 정리했다.

토마스 맹 기자

선교사 파송에 협력해야 현지인 MP3 성경도 제작

29일 오전에 진행된 특강에서 GMS 본부 총무인 최병국 목사가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앞으로의 선교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선교 제일 한민족이라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해외 선교를 더욱 열심히 감당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이어 최 목사는 "본부에 들어와 알게 된 것은 선교사를 내보낸 목회자들을 보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다. 선교사를 보



GMS 본부 총무인 최병국 목사가 이 선교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연합된 선교전략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GMS는 교단 독립 선교단체로 이제 13년이 됐다. 지금은 새롭게 재충전하는 기회다"라며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형교회들이 해외선교를 할 때 교단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연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복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목사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중 언어가 되는 현지인을 고용해 성경을 읽게 해 MP3로 녹음해서 현지에 전하는 선교 전략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우리방송 라디오 120분 토크 쇼

우리방송에서는 변화하는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이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 합니다.

- 2013년 부터 변화하는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혜택.
-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의료 혜택 선택안.
- 메디칼 / 메디케어 수혜자의 ADHC 플랜.

방송시간: 6월 20일 2012년 12시 부터 2시 까지

출연자: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하나건강보험, 그외 다수 전문가들이 출연하여 토론을 합니다.

메디칼 / 메디케어 소지자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방송**
RadioK1230

후원:  아주관광, 서울 메디칼 그룹, 하나 건강 보험.

HANA HELA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0H66712

☎ 213-500-4563 ☎ 1-855-386-3088

하나건강보험 에서는 한인 시니어를 위해 아래 사항을 도와 드립니다.

- 1947년 에 태어나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파트 A 나 B 의 보험료를 면제하여 주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처방약을 구매 하실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주 저렴하게 구입 할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 파트C 플랜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 메디케어를 처음 신청 하십니까? 본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엑스트라 헬프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헬스는 선생님의 최선의 혜택을 위해 도움이 되겠습니다.

메디케어나 메디칼 플랜의 궁금 한 점은 저희 WEBSITE WWW.HANAHEALTH.NET 에 방문하여 Q & A에 적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헬스의 4개의 오피스중 가장 편리한 곳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DAVID KANG 714-614-0903
LA 사무실 / TORRANCE 사무실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ALLEN MIN 213-272-2412
ROWLAND HEIGHTS 사무실
1722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MI YOUNG HONG 714-715-6345
OC 사무실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SAMUEL GO 310-780-7777
LA 사무실
3600 WILSHIRE BL 1620
LOS ANGELES, CA 90010

경제적 위기 시대, 영적으로 재무장하라

OC교협 영적대각성집회 개최 예정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OC목사회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그리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가 후원하는 2012년 영적대각성집회가 6월 7일(목), 8일(금) 저녁 7시에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Church 13280 Chapman Ave, Garden Grove, CA 92840)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울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목사이며 사회는 엄영민 목사·민경엽 목사가, 기도는 손병렬 목사·한기홍 목사가, 축도는 한중수 목사·손인식 목사가 양일 순서를 담당한다. 또한 찬양은 남가주사랑의교회 연합성가대와 베델한인교회 연합성가대,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와 엘바인침례교회 연합성가대, OC제일장로교회 연합성가대와 나침반교회 연합성가대, 남가주동신교회 연합성

가대와 HYM 찬양팀, 남가주사랑의교회 찬양팀 그리고 KCCC LA IMPACK 바디워킹팀이 맡는다.

이번 영적대각성집회 말씀의 주제는 첫째날 “롬5:1-11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와 둘째날 “벧전2:9-10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라”이다.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는 “이 영적대각성집회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닥쳐온 경제적

위기는 금권만능시대의 종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 빈곤 상태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영적회복이 있으시기 바란다”고 초청의 말을 남겼다.

문의) 714-337-0278, 714-699-0210 토마스 맹 기자

선교의 불모지 개척하는 FroM

고통 받는 서부아프리카에 복음 전파



서부아프리카 복음화에 뜻과 비전을 모은 FroM 산하의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세계교회들은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장 크고 중대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전력을 다해 일사불란하게 선교에 매진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전 세계 선교활동의 관심을 비교적 덜 받고 있는 곳이 있는데,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의 전체 50개 국가 중 22개가 불어권이며 인구 비율로는 거의 60%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왕성한 국가들이 주로 영어권이다 보니, 아프리카 선교도 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선교전문가들은 이 시대 마지막 선교의 불모지로 불어권 서부아프리카를 꼽는다.

중심국가인 코트디부아르에 현지 베이스캠프를 운영 중이다. 이슬람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지역 중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90%의 교회가 아비잔이라는 중심도시에 모여 있을 정도로 교회개척이 필요하다.

지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ATI는 감격적인 첫 강의를 시작했다. 북미주의 우수한 신학대학원 중의 하나인 켄터키주 남침례신학대학원(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켄터키선교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 중인 이윤영 목사는 구약개론을 16명의 현지 목회자들에게 강의했다.

정규신학훈련의 기회가 극도로 희귀한 서부아프리카의 현지 목회자들은 현지목회자로서의 현장성이 뛰어난 강의를 수강한 후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동 오일머니의 영향력으로 아프리카 특히 서부아프리카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이슬람에 맞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FroM(Frontier Missions, 박우원 이사장)이다. 이 단체는 한국과 미국의 몇몇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로지 불어권 서부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이다.

한편, FroM을 모체로 하여 산하기구인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ATI)는 서부아프리카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다. 북미주와 유럽에서 신학을 공부한 현지 교수 및 목회자들이 일년에 한차례 이상 현지를 방문하여 2주일간 집중적으로 현지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한다. 일년에 6-7회 정도 훈련을 하며 이렇게 3년 과정을 마친 후에는 전도유망한 졸업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교회에 없는 지방 중소도시로 개척 보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강사진들이 섬기는 미주 이민교회와 앞으로 ATI의 졸업생들이 개척할 교회들과 자매결연을 통해 협력선교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 FroM은 서부아프리카의

뿐만 아니라 수업기간 동안 합숙한 신학생들은 새벽 기도와 낮 예배, 저녁 예배 등 강도 높고 실질적인 영성훈련을 통해 선교현장에서 열매 맺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미주의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아프리카에서 뜻깊은 선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현지에서 13년째 선교활동을 펼친 광기종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리다꿈”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이면서도 이름없이 40대의 젊음을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했던 광기종 선교사의 꿈이 미국과 한국의 목회자와 공유됐다.

그러면서 현지교회 지도자를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의 중심의 선교를 하는 데에 이 모여져 협력선교의 좋은 모델이 된 것이다.

앞으로 FroM은 세네갈, 부키나 파소, 말리 등 서부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으로 선교활동을 확장할 계획이다.

문의: 714-482-5466(안상희 교수) sangheemahn@gmail.com 한주연 기자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름다운 헌신을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대학교에서 뮤지컬 <두 제자> 공연



뮤지컬 <두 제자>를 준비 중인 베데스다대학교 뮤지컬팀의 멤버들

지난 5년 동안 “The Victor”, “요셉의 꿈”, “용서”, “His Mission”, “When I Lost”, “Blessing” 등 여러 작품을 통해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온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음악대학(에스티 조 학과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오는 6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베데스다대학교 Grace Hall(730 N. Euclid St. Anaheim, CA92801)에서 뮤지컬 ‘두 제자’를 공연한다.

이 공연의 연출자인 송규식 목사는 “이 작품은 두 제자의 캐릭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혼란한 시대와 혼탁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게 하는 작품이다”라며 “대체로 뮤지컬을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웅장하고 볼거리가 많은 베라이어티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Tony Awards를 수상한 유명한 작품들 중에는 10여명의 연기자와 10여명의 라이브 앙상블만으로도 그 작품성을 인정 받은 Steven Sater 원작과 Duncan Sheik 작곡의 ‘Spring Awakening’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저희 음악대학 뮤지컬과에서 공연하는 작품 ‘두 제자’는 소규모의 출연진과 소규모의 라이브 앙상블 반주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메시지가 있는 작품으로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다”고 전했다.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은 2007년부터 종합예술 분야인 뮤지컬학과를 신설하여 연기, 노래, 춤, 연출 등 다양한 분야를 역량 있는 교수진들을 통해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문의) 714-683-1210 빅터 박 기자

OC교협 주최, 사모 블레싱나이트 열려



사모를 섬기는 이 행사에서 엄영민 교협회장이 직접 음식을 서빙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이민교회 사모, 그들은 언제나 안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자들이다. OC 지역 목회자들은 이민교회 사모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OC교협 주최로 사모 블레싱나이트(Blessing Night)가 지난달 31일 오후 7시에 하워드존슨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목회자들은 1부 예배가 끝나자 매고 있던 넥타이를 풀고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갖고 사모들이 앉은 테이블에 서빙을 하면서 낯선 풍경을 연출했다. 사모들은 이런 분위기를 낯설어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는 분위기였다.

엄영민 목사는 설교에서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사모님은 위대하다”며 “빛과 이름

도 없이 목사님의 그늘에서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아름다운 희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 힘을 합쳐 사모들의 아름다운 헌신에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하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사회 윤덕곤 목사(엘바인브릿지교회), 찬양 한석호 목사(남가주침례교회), 기도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설교 엄영민 목사, 축사 신중은 목사(플러튼제일교회), 축도 박용덕 목사(남가주침례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2부 시간에서는 웨디 유사모의 기도로 식사를 한 뒤, 3부 레크레이션에서는 송규식 목사의 인도로 즐거운 게임의 시간을 보냈다.

OC사모회는 매달 둘째주 월요일 오전 10시 나침반교회에서 모임을 열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PCA)에서

2012년 제 24기 목사안수식을 거행하며 이에 공고합니다.

일시: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133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월드타운교회) 213-382-3258

임직자: 최학선 선교사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1 / Fax: 424-257-8136 / www.cohenu.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p>
 <p>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p>	 <p>솔로몬 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망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p> <p>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p>
 <p>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p> <p>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p>	 <p>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p> <p>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p>
 <p>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p> <p>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p>	 <p>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p> <p>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p>	 <p>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p> <p>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edu</p>
 <p>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p> <p>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p>	 <p>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여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p> <p>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p>	 <p>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p>

제23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2:13)

단기 선교를 그리는 고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문	고문	고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직전이사장	상임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실무위원장	홍보위원장
										
홍정순 목사 삼양감리교회	배동윤 감독 청양리감리교회	추연오 목사 은파감리교회	김중훈 목사 월곡감리교회	김태석 목사 상양중앙감리교회	구자경 목사 장동감리교회	고은기 목사 보통교회	김영덕 목사 삼위교회	최동호 목사 중곡중앙교회	김상빈 목사 연원교회	김민조 목사 임아영교회
21C 위원장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박복영 목사 공주회교회	이현승 목사 남천교회	신필수 목사 인양동교회	김성희 목사 파라이강보리교회	김승자 목사 맷밭중앙교회	이일성 목사 순복음삼일교회	김경식 목사 임아영교회	정남준 목사 향촌제일교회	송요섭 목사 골짜기교회	김동수 목사 반석교회	김의택 목사 막산중앙교회
사카고지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	필리핀지부	강동지부장	김제지부장	의정부지부장	아산지부장	부평지부장	홍천지부장
										
안성기 목사 남사부교회	이은 목사 보통스 사명교회	차희회 목사 능동중앙교회	백혜현 목사 파라이강보리교회	서삼을 목사 서산중앙교회	김연숙 목사 수경교회	신보화 목사 남아순교도원	강은식 목사 삼승교회	임민희 목사 글자교회	조정숙 목사 세일중앙교회	이상욱 목사 불영동감리교회
708-307-9290 630-455-0063	323-528-0778	646-270-5522	898-353-0962	070-7555-7396 6306-878-2636					007-353-8291	010-5780-6418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
엘림교회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
한동교회

LA 지부장 **김천한** 선교목사
사랑의 띠 선교회

단기선교문의

로스앤젤레스	한국
지부장 김천한 선교사 213-736-6625(사랑의 띠 선교회)	고창수 목사 011-250-5642, 02-2632-4806
하와이 지부: 백애현 총무 808-383-6962	

- 우리은행: 173-245274-13-002
- Email: ellim54@hanmail.net
- 후원: 극동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시카고기독교방송, 한·장·선, 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
- 당일출발접지: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옆 (오전 10시) (5호선 2호선차 영등포구청 옆)

일시: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까지

집회: 새벽6시 · 낮1시 · 저녁7시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65번지
www.ellim1004.com / Tel. (02)2632-4806 · 2634-6557 Fax. 2679-5642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도원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출) Tel. (031) 531-1151~2, 533-0602

바이올라대학교, 동성애 단체 결성돼

한인목회자 다수 배출한 기독 명문, 파장 예상

한인 목회자들을 다수 배출한 LA 기독 명문 바이올라대학교(Biola University) 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바이올라 퀴어 언더그라운드(The Biola Queer Underground, 이하 BQU)’라는 이 단체는 지난 9일,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공식 지지한 날, 학교 캠퍼스 기숙사 곳곳에 전단지 뿌리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이 단체에는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들이 소속돼 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단지에는 “우리는 바이올라 대학 내 LGBT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재학생이고 졸업생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LGBT 그룹은 바이올라대학의 다양성, 또 다

른 한 면으로 평등한 대우와 존중을 받을 원한다”고 쓰여 있다.

바이올라대학 배리 코리(Barry Corey) 총장은 “특정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결혼과 성(性)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고려할 때, 혼외 혹은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은 기독교인의 믿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 18일,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한 코리 총장은 “뜻밖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다”라며 내년에는 성경재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데 덧붙혔다.

한편 BQU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학 측은 대화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다른 견해(지지 입장)를 지닌 기독교인을 초청하지 않는 이상,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 동성애에 관한 당신들의 독백은 우리에게 공평하지 못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바이올라대학은 보수 신학을 견지하는 탈북신대학원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인의 신앙에 부응하는 술, 담배 금지 등 까다로운 규정에 서명해야 입학이 가능하며 교수 및 임직원, 재학생 모두 크리스천이다.

1908년 복음주의 정통을 이어받아 세워진 이 대학은 현재 한인 학생 비율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십자가사건 정확한 날짜 33년 4월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정확한 시기를 지질학(geological)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십자가 사건이 AD 33년 4월 3일 금요일에 있었다는 지질 연구 결과가 지난주 국제지질학 리뷰(International Geology Review)에 소개되었다.

과학자들은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을 근거로 천문 자료를 통합해 지진 활동을 조사했으며, 특히 예루살렘에서 13마일 가량 떨어진 ‘인 지디 스파 해변(Ein Gedi Spa beach)’의 3개 진원지를 조사하는 사해 지진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질학자 제퍼슨 윌리엄 씨는 “복음서의 여러 기록과 연구 결과를 접목했을 때 33년 4월 3일이 가장 맞는 날짜일 것”이라는 견해를 디스커버리 채널에 밝혔다.

권나라 기자

KWMC 선교대회

“선교에 지금 헌신하라”

→ 1면으로부터 한기홍 목사는 “한인교회가 종전의 로컬교회의 차원에서 벗어나 미션리교회로 될 때 오늘날의 교회 내 분열을 비롯해 동성애 문제 등 사회 제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답일 목회자와 부교역자, 장로 등 개교회 리더들이 은혜 받고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규모 대회인 만큼 적지 않은 경비와 맨파워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선 남가주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예대회장인 박희민 목사는 “역대 대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실질적인 선교 동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그동안 많이 보았다”며 이번 대회에서도 2백여 워크숍을 통해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제반 정보들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주관방송사로 후원하는 미주복음방송의 사장 박신욱 목사는 “지난 24년간 KWMC가 북미주를 기반으로 한 한인세계선교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며 “GMI 및 SEED 소속 4백여 북미주 선교사들과 북미주에서 세계 각지로 파송된 1천여 선교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한인세계선교는 KWMC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시카고 힐튼 대학에서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 끝 선교”란 주제로 열리며, 전 세계 한인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등 7천여 명이 모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량을 모으는 한국 기독

교 최대의 선교대회로 이끌 계획이다. 선교포럼과 주제 강연은 ▲한국형 선교 모델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전략 ▲미전도 종족 선교전략 ▲평신도 선교운동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 ▲의료 선교 ▲구제 및 NGO 선교 ▲IT/인터넷/방송 선교 ▲문화 선교 등 선교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인청년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GKYM)와 세계선교사자녀협의회(WMK) 등 제반 선교운동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한인선교의 미래를 논하고 세계선교의 동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18세 이상 29세까지의 대학생 및 청년 차세대 선교 헌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GKYM 페스티벌과 13세 이상 17세까지의 영아권 청소년들을 위한 GKYM 유스 대회를 통해 해외 한인청년들과 선교사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선교사와 셀 그룹 조직을 통한 연대감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20일부터 23일까지 18세 이상의 선교사 자녀(MK) 5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MK선교대회를 개최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사명에 도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선교대회도 본 대회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마련돼 온 가족 단위의 참석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여병현 목사는 “대회 기간 중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1대1 카운셀링도 진행할 계획이며, MK들만이 가진 아픔과 고충을 들어 주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나 기자

나성소망교회 창립기념 및 임직예배 성황리에 드려



나성소망교회 임직예배 식순자들과 임직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힘있고 건강함 중령교회를 지향하는 나성소망교회(김재을 목사가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경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를 갈릴리신학대학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예배의 설교를 맡은 남가주목사회 회장인 김영대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김 목사는 “미국을 세운 퓨리탄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

고, 나중에 집을 구했기 때문에 신앙도 없고, 물질도 얻었다. 하지만 남미의 나라들은 금을 찾으려고 하다 물질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권면에 갈릴리신학대학 교수인 백철 목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개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신 질문에서 타인을 위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나’ 하신 질문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에 항상

답하고 살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조명철 목사(기록성회복운동본부 본부장)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듯 여러분들도 이처럼 승리해 믿음의 조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로에 윤석관, 이현기, 권사에 최복희, 안수집사에 이창원, 오영동, 장세훈, 정광훈, 최종민, 조원영, 김장률 집사가 임직됐다.

사회와 대표기도는 김재을 목사가, 축사는 생명의 전파 대표 박다윗 목사와 남가주목사회 부회장인 정종윤 목사가, 축도는 아가페신학대학 총장 이시곤 목사가 맡았다.

빅터 박 기자

4차원 영성으로 평신도를 사역자로 변화시키자

미기총,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공동으로 준비

Ministry Training School(이하 MTS) 컨퍼런스 및 4차원 영성 리더십 세미나가 나성서부교회(이정현 목사, 1218 Fairfax Ave. Los Angeles CA90019)에서 열린다.

MTS 컨퍼런스는 평신도를 목회자 같은 사역자로 세우는 평신도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 담임), 정도량 목사(MTS 전문강사),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담임 및 4차원 영성 전문강사), 변영익 목사(벤엘장로교회 담임),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 담임), 이정현 목사(나성서부교회 담임) 등 남가주 지역에서 건강한 목회를 주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가 열리고 회비는 50불이며 중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 행사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 남가주교협, OC교협, 남가주목사회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다.

문의: 714-337-0550, 323-404-3147

한주연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하시는 분 하숙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취급 품목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오징어젓	고추전어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쫄무침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잎무침
가리비젓	양념깻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새기젓	간장깻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깻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256-4707**

자 동 차! 토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일것입니다.

주관 : 기독일보 후원 : NARA AUTO바디, LA정비, 웨밀리자동차 연락처 : 기독일보 213-739-0403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 세우기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회

종교개혁자들의 강력한 주장은 “오직 믿음”(sola fide)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오직 은혜로만”(sola gratia)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면서 위대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에 흠여짐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신앙의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은 “값싼 믿음”(cheap grace)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삶을 통해 윤리적 적실성과 탁월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여 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점차 믿음을 안에서 자신을 형성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충만했던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실마리

를 제공합니다. 그는 온 성도들이 더욱 힘써서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고 권면합니다. 이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자기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친 것이고, 또한 성숙의 방법을 지시한 것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는 먼저 인격의 변화라는 덕의 고양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인격은 형편없다는 비난은 피해야 합니다. 더스러운은 바른 지식,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동행해야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기에 자기 통제 즉 절제(self-control)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인내를 통하여 완숙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경건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신적 친밀함에 이른 사람들은 형제 우애를 통하여 완전한 아가페적인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의 인격을 건축한 사람은 견고한 성체와 같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순간의 깨달음을 수 있지만, 성화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성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소유의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모델(having model)로 보기보다는 성장모델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기를 권면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마련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
라팔마 시 부시장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기독교는 수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앞만 보고 달려오다 중요한 것들을 망각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스스로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성경적인 목회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면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한’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목회자일까요? Ron Gleason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성공한’ 목회자를 설명합니다. 첫째, 성공한 목회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양적으로 큰 회중을 이룬 목회자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고 온전하게 외치는 자(행 20:27)’입니다.

둘째, 성공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한’ 목회자

다. 이사야 66:2에서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성공한 목회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아는 목회자입니다. 신약의 가르침과 종교 개혁자의 주장에 의하면, 목회자는 맡겨진 영혼들을 실질적으로 보살피어야 합니다.

넷째, 개혁주의적인 교회들의 목양의 특징은 심방과 자녀들의 교리 문답(catechism) 교육입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진정한 목양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수적으로 너무 비대해지면 자식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로서 작은 교회들을 분림·개혁시켜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커질수록 목회자는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실질적인 목양의 뒷전에 물러나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목회자의 성경적 리더십의 효율성과 교회의 양적 성장은 필연적으로 반비례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너무 커지면 필연적으로 목회자는 목회의 본질을 벗어난 비성경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진정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양들과 거

리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다고 맡겨진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소위 ‘성공한’ 교인들만 선택적으로 심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째, 진정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중을 잘 알아야 그에 더 구체적인 설교와 가르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효과적이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그를 진밀히 알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여덟째, 목회자는 근면해야 하며 개인적인 명예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진정한 목회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양들을 인도해야 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그는 대장이 되기에 앞서 작은 일들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Ron Gleason 목사님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육군 전자부대 대장을 지냈으며 미국 CIA 요원들에게 러시아 탱크들에 대해서도 교육했습니다. 목회의 소명을 받은 후 고든콘웰신학교,

화란자유대학, 화란개혁교회신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도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인이면서도 네델란드(화란)에서 네델란드인 현지교회, 캐나다에서 화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셨으며 현재는 남가주에서 20년 가까이 목회하고 계십니다.

연제부턴가 많은 교회들의 예배와 목회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비자’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예배와 목회의 초점이 되어 버렸으며 과도하게 비대해진 교회의 목회자들은 진정한 성경적 목양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반면에 수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많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 중에는 갈등과 혼란에 빠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짚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도리어 신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배와 목회기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라 생각합니다.

〈한석호 목사의 성경상식 바로 알기〉

구약의 제사 어떻게 드렸을까요?



한석호 목사
남가주임마누엘교회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은 제사 드리러 온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제사인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인의 죄를 짐승에게로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린

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인과 제물 가운데서 안수하는 제사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기 1장 전체를 보면 제사인이 직접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사인이 성막으로 제물을 가져 오고 자신이 직접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인이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그 후에 제사장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제사인은 제물이 다 타서 제가 되어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인이 직접 안수하고 직접 죽이고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번제단 곁에서 기다립니까? 모두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수는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는 것까지 제사인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제물이 다 탈 때까지 번제단 곁에서 지켜 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사인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어야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여야 받습니다. 고

운 가루 역시 철저히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제사인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9:12-14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naver.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몰 2층) LA, CA 90006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과 대학 교수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 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헤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 갈 심해 복통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초박시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 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빠른 효과 치료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블부왕/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당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웹사이트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213.271.7002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츨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츨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윌빙염, 아재염 \$50.00 하이아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펠 \$80.00

반드시 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5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드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50년 경험방으로 특수치료 **50% 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증,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금 삽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 등)

- 처리경험 풍부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 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민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APPLE TREE ACADEMY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Pick up, 전담한 선생과 함께 학교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뜨거운 세일러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안,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세상 속의 소금과 빛, 우리는 그리스인〉

한인사회 복음화 기여하는 한인재단 소망

[인터뷰] 미주한인재단 총회장 박상원 장로

-지금 섬기고 있는 미주한인재단 창립의 숨은 공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99년에 하와이에서 김창원 씨에 의해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지정하여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기구인 "백주년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출범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함께 했던 멤버로 2003년 6월 이 단체가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일부는 완강하게 해산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저와 남가주 지역 지도자들이 이미 많은 경비를 들여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 있을 기념일을 만들어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만든 단체가 미주한인재단입니다. 이 단체에서 13년간 꾸준히 노력한 바 급근이 미주한인의 날 9년째였는데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함께 기념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10주년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미주한인재단은 무엇이고, 앞으로 준비 중인 행사는 무엇입니까?

백주년기념사업회가 했던 역할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갖은 노력 끝에 드디어 2004년 1월 13일이 미주한인의 날로 영구히 제정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일의 의미를 모른 채 그 날을 소홀히 지나칩니다.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의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한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각 지회를 위촉하고 조직을 확산할 것이며, 새크라멘토 지회를 설립하고 가주의회에 내년도 미주한인의 날 10주년 기념식을 청원할 것입니다. 오는 10월에 제6회 세계한인의 날 참석차 미주방문단을 결성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7회 전국대회 및 정기총회를 12월에 할 예정이고, 시인 고을 씨의 기념사 비 건립안을 내년 1월경에 낼 예정입니다.

-이민신학연구소와 MOU를 맺었는데 이를 통해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까?

미주한인의날 행사 및 한인사회를 위한 행사에서는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110주년 기념회에서는 한인사회와 교계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이끌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칫하면 원리원칙 없이 특정 교회나 교단 입장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신학연구소 같은 연구기관과의 협의하에 잘못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여 바른 길로 가고자 합니다. '미주한인재단이 크리스천단체냐'하는 분도 있는데 미주 한인 중 70%에서 80%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와 하나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신앙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저는 오래됐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미주한인재단에서 봉사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살고 있는 사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에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권하게 됐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평생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교회는 원시한장로교회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정시우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주한인재단 총회장으로서 뜻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미주한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살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나쁜 나라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시민권자로서 미국이 잘 살면 우리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주인이다'라는 의식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자 총회장으로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주로 이주하도록 돕는 운동을 펼쳐



박상원 총회장

미주 이민자 수를 500만, 1000만으로 늘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하나 되면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교육을 잘 받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민족으로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의 목표는 타 커뮤니티에 소속된 한인들이 그들과 교류하며 지내도록 지도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인들은 타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을 모른 채 열심히 일에만 몰두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4.29같은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4.29 사건은 민주화된, 자유가 발달한 나라, 선진국이자 문명국인 미국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무법천지로 인권을 짓밟고 파괴하고 유린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KCCD, KAC 등 같은 단체와 협조해 폭동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교계나 언론들이 한인사회에 흑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사랑과 이해로 감싸 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한인사회가 분열되어 서로를 비판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비난하며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인생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고 풍요롭고 훈훈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주한인재단을 미주한인의 복음화에 초점을 두고 한인사회를 이롭게 하는 단체로서 발전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빅터 박 기자

힘난한 세월 지나 불치병 치료하는 한의사로

동산한의원 김이주 원장

전남 장흥군 장평면 진산리에서 태어나 친척 할아버지가 물려준 한의학과 관련 고서적을 통해 한의사의 꿈을 키워 온 김이주 원장. 시골에서 양방 병원 조수로 5년, 서울 동산한원에서 10여년, 그러다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한의원을 오픈했지만 지하철 공사 사고로 타격을 받아 정리하고 미국행을 결정한다.

미국에서의 삶도 호락호락 하진 않았다. 낯에는 공부, 밤에는 페인트칠 일로 숨가쁘게 살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발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의원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85년 로앨한의대를 2회성으로 졸업, 동산한의원을 개원한다.

또한 한의대 학생시절 한 장로를 통해 나성동산교회에 인도되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한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며 50여년간 '한인사'라는 한 우물을 파고, 73세의 늦깎이 나이지만 한국에 있는 고향에 교회를 세울 꿈에 부풀어 있다.

-언제부터 한의와의 인연이 시작 되었고, 어떻게 미국행을 택하게 되셨나요?

20대 때 한의학과 관련된 고서적을 깊이 탐독하며 큰 매력을 느꼈고 그때부터 병원에서 조수 생활을 하며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저는 서울로 올라와 국도 한의원이란 곳에서 양방과 한방을 결합해 치료하며 치질전문의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이어 영등포에 한의원을 개원했는데 실력은 있었지만 제가 너무 젊은 나이(20대)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한의원을 정리하고 보건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에 같이 일했던 한의사가 동산한의원을 개원해 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조같이 일했습니다. 이후 손님이 세대 물리듯이 많이 몰려 원장이 병에 걸려 제가 원장처럼 10여 년간 진료를 도왔습니다.

그 후 광수당이라는 한의원을 개원했으나 한의원 바로 앞 서울 지하철 공사장에서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당

하는 사건이 생겨 한의원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평소 한의학의 불모지인 미국에서 의술을 펼치고 싶은 생각을 현실로 펼쳐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오신 후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나요?

그 당시 미국에 가려면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가기가 힘들었던 때였지만 다행히 한약협회 회장이었던 김재덕 씨 외 한 명이 보증인이 돼주어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미국으로 나오려 했던 7명 중 3명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간 곳은 산호세였습니다. 그곳에서 4개월 정도 머물다가 집주인에게 쫓겨나 다시 LA행을 택했습니다. LA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싶었지만 한의사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라이선스를 위해서 동국로알한의대의 전신인 로앨한의대에서 85년도에 2회 졸업했고, 돈을 모으기 위해 페인트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발이 부러졌습니다. 그 당시 치료를 제대로 못해 아직도 왼쪽 발에는 심한 흉터가 남아 있고, 아직도 발에 통증을 느낍니다. 학교생활 당시에는 학생이지만 이미 치료경력이나 실력이 있으니 나이트 사람들이 저를 시키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회장이 된 후 곧 규율이 잡혔고 그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주한의사협회에서 총무, 부회장을 거쳐 수석부회장에 3번 했고, 한의사 보수교육이나 세미나 강사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세미나 때 강의를 좋았는지 유인대학에서 Ph.D.학위도 받게 됐고, 그곳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침술학술대회도 열고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85년 9월에 지금의 자리에 동산한의원을 개업한 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교가 불교였습



김이주 원장

니다. 그러다 83년 10월경에 김윤구 장로란 분이 한인회관 밑에서 인쇄소를 하실 때인데 나성동산교회(한기형 담임목사)에 나오라고 전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동산한원이었고 앞으로 제가 오픈하려고 하는 한의원의 이름도 동산한원이어서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그때부터 동산교회에 나가게 됐고 지금까지 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현재는 은퇴장르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한의원들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뇨, 파킨슨병, 불임병, 치질 등 치료가 잘 안되는 불치병을 치료한 경험이 많습니다. 지인이 불임증인 미국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자꾸 하혈해서 유산이 되었는데 제가 통증을 느낍니다. 학교생활 당시에는 학생이지만 이미 치료경력이나 실력이 있으니 나이트 사람들이 저를 시키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회장이 된 후 곧 규율이 잡혔고 그들도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가주한의사협회에서 총무, 부회장을 거쳐 수석부회장에 3번 했고, 한의사 보수교육이나 세미나 강사로도 많이 다녔습니다. 세미나 때 강의가 좋았는지 유인대학에서 Ph.D.학위도 받게 됐고, 그곳 강단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침술학술대회도 열고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제 아들은 저에게 자꾸만 쉬라고 합니다. 하지만 늙은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향에 다녀온 게 2007년이었는데 아직도 그곳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꿈이고, 또 하나 더 꿈이 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입니다. 땅은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경계선에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됩니다.

빅터 박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T&T and Verizon plans. Key offers include a global plan for \$9.99/month (first 3 months) and a My Korea Number service for \$50/month.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1.800.872.2902 and www.Korea.iTalkBB.com.

2012 최신행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서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599+TAX (STK:052436)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29,228.5
T.D.O: \$4,995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1 현대딜러



2012 Sonata GLS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65+TAX (STK:503039)

Closed and lease 48 month plus tax
MSRP : \$22,065 Residual : \$11,033
T.D.O : \$2,2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Rebate
(O,A,C)



6월 한달간 무이자(0%)에 \$500을 더 드립니다.

6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6월1일~30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